2025-06-30

HI FX Brief

파월 흔들기로 달러 급락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달러 3년래 최저치까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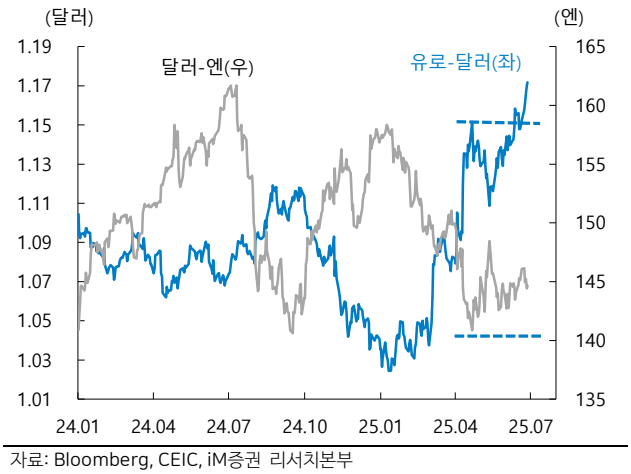
- 달러지수가 3년래 최저치 수준까지 급락한 이후 소폭 반등함. 파월의장의 비둘기파적 의회 증언 및 미 연준 인사들의 7월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의장 조기 지명설 등이 달러 급락으로 이어짐
- 유로화는 달러화 급락 및 중동 리스크 완화 등에 힘입어 강세폭을 확대하면서 최근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임
- 엔화 역시 엔 자체 재료보다는 달러 약세 및 미-일간 관세 협상 경계감 등의 영향으로 1% 가까운 강세를 기록함. 다만, 유로화와 달리 강세폭은 여전히 제한적 수준임
- 역외 위안화는 강세 기조를 이어감. 달러 약세 속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의지가 한층 강화된 영향 등이 위안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함
- 호주달러 역시 1% 넘는 강세를 기록함.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및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이 호주달러 강세 재료임
- 달러-원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함. 달러 약세, 중동 리스크 완화 그리고 엔과 위안화 강세 등이 원화 강세폭을 확대시켰지만 분기말을 앞두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확대 등으로 추가 하락폭은 제한됨

	6월 27일 종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97.4	-1.32	-10.22
유로-달러	1.172	1.69	13.17
달러-엔	144.7	-0.99	-7.98
역외 달러-위안	7.17	-0.09	-2.25
호주달러-달러	0.65	1.19	5.51
달러-원	1,361.4	-0.92	-7.53

금주: 관세 협상 경계감 및 6월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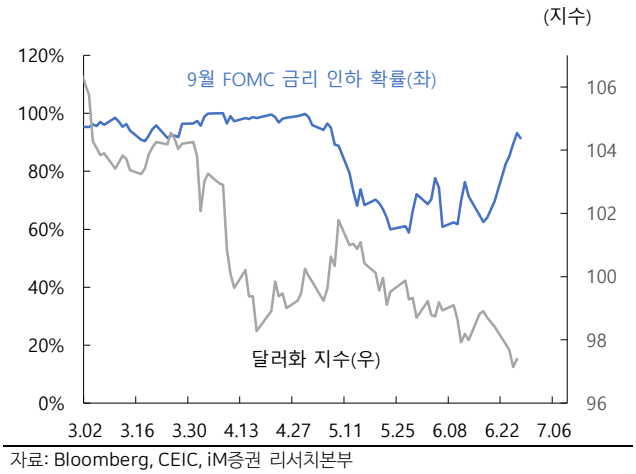
- 7월 8일 관세 협상 마감시한을 앞두고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월 고용지표도 주목해야할 변수임. 만약 6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의장 흔들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7월 금리인하 기대감 역시 증폭될 것임. 이는 달러화의 추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달러-원 환율 역시 관세 협상 시한 연기 여부, 달러화 추이 그리고 국내 증시의 추가 랠리 등에 따라 등락을 보일 전망이어서 아직 1,350~60원대 중심으로 한 등락 흐름을 예상함. 이번주 달러-원 환율 밴드는 1,340~1,380원으로 전망함

그림1. 최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유로-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9월 FOMC회의에서 금리인하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 중임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